

리퀴드메탈, 디지털카메라 채택

Sony와 외장재로 개발기로 계약 ... 차세대 신소재로 인기 구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리퀴드메탈이 일본 Sony의 디지털카메라 외장재로 채택됐다.

리퀴드메탈 원천기술 보유기업인 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는 Sony와 디지털카메라 외장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의 존 강 사장은 Sony와의 협력이 리퀴드메탈의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의 커다란 진보라고 평가하고 고성능 카메라 외장에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퀴드메탈은 강도가 티타늄의 3배나 되고 부식이 전혀 안되면서도 공정이 플라스틱과 유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신소재이며, 최근 휴대폰, 시계, 의료기구, 스포츠 용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태그호이어, 록히드마틴, 미국 국방부 등과도 제품개발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5/29>